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제2회 주님말씀요절송경(誦經)대회

해동산업 남청팀 대상, 마산승리제단 금상



대상을 받은 해동산업 남청팀이 랩으로 요절을 송경하고 있다



금상을 받은 마산승리제단의 절도 있고 색색한 송경 모습

제2회 주님말씀요절송경대회 결과 해동산업 남청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마산승리제단팀, 은상은 부산승리제단의 김원찬, 예덕자, 동상은 진해승리제단팀이 받았다.

올해는 단체가 3팀, 개인이 8팀, 총 11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단체로 참가한 팀은 다 상을 받았고, 개인 참가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듀엣으로 참가한 김원찬과 예덕자가 은상을 받았다. 아무래도 단체로 참가하면 연습과정에서 부담하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점들이 인정되어 개인 참가자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최측에서는 참가자 3명까지는 개인으로 보고 4명 이상부터 단체로 본다.

대상을 거머쥔 해동산업 남청팀은 서복목, 김종오, 김건균, 정효진, 조건우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님말씀요절 3편을 작곡하여 노래와 율동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요절 한 편은 랩으로 작곡하여 성도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주님말씀을 랩으로 부르는 신선함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마산승리제단팀(안병관 외 9명)은 울동보다는 송경(誦經)이 주로 작년처럼 씩씩하고 힘찬 모습을 보여준

과 동시에 절제된 표현과 군대식 멘트로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여 성도들로부터 웃음을 끌어내어 금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은상은 부산승리제단의 김원찬 예덕자에게 돌아갔는데, 장중한 배경음악과 두 참가자의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 있는 송경(誦經)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까지 흘리게 하였고, 주님께서 당한 고난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남은 동상은 최다 참가자로 구성된 진해승리제단팀(이창선 외 11명)이 차지했다. 12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송경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이끌었다.

김종만 심사위원장은 "올해부터는 주님말씀 요절 암송대회를 송경대회라고 바꿨다. 요절이란 말은 문장 중에 요긴한 마디를 뜻하고, 송경(誦經)은 경을 외운다는 뜻이다. 암송도 틀리지는 않으나 송경이 대회의 취지에 보다 들어맞는 것으로 보여 송경대회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음, 정확도, 호소력, 조화미, 관객과의 친화력을 심사하였는데 해동산업팀은

여러 심사위원으로부터 50점 만점을 받는 등 다른 참가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대상을 차지했다"며 해동산업팀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은상과 동상은 약 1점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었다. 김원찬 예덕자 참가자가 호소력 높은 송경으로 예상 밖으로 진해제단을 제치고 은상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회 주님말씀 요절 송경대회는 참가자들이 송경할 때 예배에 참여한 승리제단 전 식구들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속으로 그 뜻을 음미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서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의 큰 잔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윤봉수 대표는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을 대회를 통해 듣게 되니 더욱 감동이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대회 내내 느꼈던 감동을 말했다.

시상을 한 이영자 총재는 "상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대회에 참가한 어느 한 분 빼놓을 수 없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면서 "참가자 한 분 한 분 다 귀한 승리제단 식구들이며 이기신 하나님의 훌륭한 가지들이다. 정성을 다하여 송경하는 모습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정성을 기울여서 대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말씀하였다.

요절송경대회는 매년 성탄절 2부 순서 때에 개최된다. 자신의 신앙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년 대회를 위해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충천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43)

“소사 사망 30리에 금은보화로 지은 궁전이 선다”

이 소사에다가 사망 30리에 금은보화로 지은 궁전이 세워집니다. 세계궁전이 하늘 높이 서게 되면 세계만민들이 이제 그 궁전을 구경하러 올까, 안 올까? 그런데 그 궁전 안에는 못 들어가. 그 궁전 안에는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 죽을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궁전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사람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세주의 말을 안 듣고, 구세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나라와 그 백성들은 전부

멸망당한다고 써어 있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사야 60장 12절, 격암유록 내배 예언육십세(來貝豫言六十才)]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의 구세주의 세계는 바로 순종하는 하늘의 식구들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의 세계는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부천시가 서울이 돼 버려요. 세계정부가 여기 있는 고로, 여기가 세계의 서울이 돼 버려요.*

구도의 길

잠자리를 옮길 때는 주님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잠자리를 옮긴다. 친구나 친척집에 가서 굳이 밤을 넘길 필요가 없는 데도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놀러 가서 쉽게 아무 곳에서나 숙박을 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 친구나 친척집에서 가서 잠을 설치고 온 경험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을 설치면 컨디션이 안 좋으니 그날 하루를 망치게 된다.

잠자리를 바꾸면 왜 잠을 설치게 될까? 영의 싸움 때문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의 물질이 몸에서 방출된다. 방출된 생각의 물질은 천정이나 벽, 이불, 장롱에 붙어 있고, 그 방 공기 중에 깔려 있다. 친구나 친척 집에 가면 그 친구나 친척에게서 방출된 생각의 물질이 나에게 오염되게 되고, 여관이나 호텔과 같은 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뿜어낸 생각의 물질이 나를 오염시킨다.

반면 자신의 속소는 내가 방출한 생각의 물질이 나에게 오염되지 않는다. 잠자리를 바꾸게 되면 타인의 생각을 흡수하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피부와 몸에 닿아서 오염시키기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된다. 특히 마귀 영이 강한 사람이 쓰던 속소라면 더욱 잠을 설치게 되고, 잘못하면 죽을병에 걸리기도 한다. 다른 곳에 가서 자고 왔다가 병을 얻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경험상 알고 있다.

잠자리는 될 수 있는 한 안 옮기는 게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를 옮겼다가 병에 걸리거나 잘못하면 죽게 된다. 특히 사람이 죽어 나간 곳이라면 병자가 사용한 방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잘못할 수 있다.

부득이 잠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구세주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주님께 기도해서 허락을 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본인으로 오셔서 그 집안에 가득 찬 마귀를 박멸소탕해 주신다. 잠자리는 구도자들이 도를 이루기 위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부득이 잠자리를 바꿀 때에는 꼭 주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요절송경대회를 마치고

이번 제2회 주님말씀요절송경대회에 11팀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 중에는 80대가 된 연로하신 분들도 있었다. 먼 저 그분들의 용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실수를 해서 체면을 구기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참가한 연로한 권사님, 장로님, 승사님들의 용기에 대하여 어떠한 칭찬도 부족하다. 신앙은 이러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타인을 의식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신앙은 오직 주님만을 의식해야 한다. 이번 체면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던 것이다.

또한 신앙은 마음의 싸움을 요구한다. 마음의 싸움이란 마귀의 마음을 하나님(부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참가신청을 해놓고 날짜는 가까이

다가오는데 외워지지 않는, 마음은 콩닥거리고 '너 이상 잘 안 외워지니 포기할까' 하는 마귀의 마음이 올라온다. 푹푹 찌는 한 여름 날씨도 참기 어렵는데 요절마저 잘 외워지지 않으면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안 외워지지?' 하면서 짜증이 나오려고 한다. 그걸 이기고 또 외우고 또 외운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분들이다.

신앙은 정성이다. 매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은 신앙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도 많은 정

성을 들어서 준비하였을 것이다. 외우고 또 외우고, 다 외웠나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보고, 남들 앞에서 미리 외워도 보고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상을 받은 팀이나 개인은 자신이 준비한 정성 그대로 상을 받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와 같은 정성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 있다.

제3회 주님말씀 송경대회에는 보다 더 용감한 어르신들과 마음 싸움에서 정성을 다해 승리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만 승사/심사위원장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